# 선진 IR후기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양돈/사료 시장 동향**

전체 사육두수 증가세 지속, 농가수 지속 감소 중 농가당 사육두수 증가세 지속되면서 기술력과 서비스 측면에서 대형 사료업체에 유리한 환경 조성. 최근 곡물가 상승이 있긴 했지만 15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 안정 흐름을 겪어서 아직 큰 영향 없음

ASF 발병은 돈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료 사업에는 부정적. 구제역이 공기중으로 전염되는 반면 ASF는 야생동물을 통해 전염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국에서 유입될 가능성을 회사 차원에서는 낮게 보고 있음

**사료부문**

사료 매출 비중은 양돈 70, 축우 30. 사료매출 구성은 1/3 계열화, 1/3 외부농장 양돈, 1/3 축우 사료. 사료 마진은 11~13% 수준. 사료 판매량 17년 63만톤, 18년 68만톤, 19년 80만톤 목표, 19년 사료판매 가능 계열화 양돈은 60~70만두, 외부는 35~40만두 예상. 사료판매 전체 양돈은 18년 80만두에서 19년 100만두로 증가 예상

**식육부문**

식육은 돼지를 가공 돼지 고기를 생산/판매 하는 부문. 식육은 3~4% 적자, 식육은 매입 가격 대비 낮은 판가 구조. 선진포크 브랜드 외에 OEM 판매 제품들의 저가 판매 지속. 선진의 돼지고기 점유율은 4.8% 수준. 식육 매출 내 선진포크 브랜드육 비중은 10% 내외,

**양돈부문**

GGP농장 2개, GP농장 7개, 모돈 농장 40개, 비육농장 170개 Capa, 18년 60만두 출하 19년 80만두 목표, 20년에도 양돈 추가 확보 목표 GGP 1두당 이론적으로 3,000두 비육돈 출하 가능. 올해 양돈 시세를 전년 수준으로 계획했으나 하반기 수입 물량 감소에 따라 소폭 상승 가능성 있음

**육가공부문**

육가공 부문은 햄/패티류 등을 생산/판매. 급식 부문에 강점이 있으며 18년 부터 맥도날드향 패티 공급 시작. 육가공은 급식, 패스트푸드 패티, 간편식, 선진FS, 선진햄 등 1,200억원 매출액에서 급식 향 공급 40% 차지

**해외법인**

해외법인 중 선진비나, 선진팜스코 인수하려고 계획 중이나 세금 이슈가 있음. 19년 중순 마무리 예상

필리핀: 사료/계열화 사업 영위, 대주주(하림 지주), 연기준 매출액 1,,300억원, 영업이익 180억원. 19년 필리핀 업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베트남: 사료/계열화 사업 영위, 연기준 매출액 1,500억원, 영업이익 210억원. 19년부터 연결 인식. 연결 반영 시점은 1~2분기 중. 19년 업황은 돈가 개선 효과로 전년비 실적 성장 예상

중국: 사료 사업 영위, 양돈 보다는 비육우 사업이 더 성장성이 좋아서 그쪽으로 주력할 계획. 연기준 매출액 600억원 매출액, 영업이익은 20~ 30억원 적자. 로컬 업체와의 경쟁으로 사업 확장이 더딘편, 사료 자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음

미얀마: 사료/양계 계열화 사업 영위. 연기준 600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70~80억원. 95% 지분 자회사이며 사료, 연간 10% 이상 성장 중. 양계부문에 주력, 매출액 꾸준히 성장 중

인도: 18년 10월 법인 설립 매출액, 영업이익 미미함. 축우/낙농 사료 사업 영위. 사업 초기로 의미있는 성과 기대하기 어려움. 연간 6천톤 판매 목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6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 (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6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6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